

사학과 50년 - 학문적 성과와 위상

이 희 만 · 황 민 호*

차 례

- I. 머리말
- II. 형성기 - 창설로부터 1970년대 까지
- III. 성장기 - 1980년대로부터 현재까지
- IV. 맺음말

I. 머리말

올 해는 숭실대학교 재건 50년과 더불어 사학과 창설 5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다. 그리하여 본 고에서는 사학과와 지난 50년간의 족적을 통해서 사학과와 학문적 성과, 위상 및 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학과가 독립된 학과로 출발하기 시작한 것은 1954년이였다. 하지만 숭실에서 역사학적 전통은 평양 숭실 시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초창기 숭실대학에서는 역사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과로 설치되지는 않았지만, 광범위한 의미의 교양 내지 인문학의 하나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숭실 초창기에는 미국사, 영국사, 20세기사 및 전기 등이 주로 선교사들에 의해 가르쳐졌다. 한편 일본의 식민지배의 강화는 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를 강요하였으며, 이로 인해 1925년 숭실대학은 숭실전문학교로 개편되기에 이르렀다. 그

* 숭실대

후 숭실전문학교에서는 주로 한국인 교수들이 역사 과목을 담당하였다. 동경 제국대학 철학과 출신의 채필근 교수는 한국사 및 한국사상사를 가르쳤다. 채필근 교수는 『철학과 종교의 대화』(대한기독교서회, 1964), 『비교종교론』(대한기독교서회, 1968) 등의 저술을 남겼다. 숭실대학을 졸업하고 와세다 대학에서 수학하였던 우호익 교수는 동양사를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 수학하였던 정현규 교수는 서양사를 가르쳤다.

이와 같이 숭실전문학교는 한국사, 동양사 및 서양사를 아우르는 교수진을 갖추고 있었던 바, 이는 당시로서는 역사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지식과 안목을 제공한 매우 훌륭한 모델이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숭실의 역사학적 전통은 충분히 성숙하기도 전에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 학교가 일제에 의해 폐교됨으로써 단절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한편 조국의 해방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던 숭실 재건은 남북의 분단 및 한국전쟁 등으로 한 때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동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교계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1954년 숭실은 서울에서 재건되었다. 게다가 재건과 더불어 본교에 사학과가 설립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숭실의 역사학적 전통의 복원이라는 당위성에 기초하고 있었던 것이다. 숭실대학의 재건은 단절되었던 본교의 역사를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평양 숭실의 역사학적 전통을 계승하는 전기가 되었던 것이다.

II. 형성기 - 창설로부터 1970년대 까지

1. 교과과정 및 대학원의 창설

1954년 4월 15일 대학설립 인가와 더불어 설치된 사학과 창설 교수진은 우호익과 김양선이었으며, 학생 총정원은 120명 그리고 입학정원은 25명이었다. 한국전쟁의 폐허로 인해 재건 당시 본교의 시설 및 운영체제 전반이 충분히 정비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당시 개설된 전체 강좌는 교양필수 7과목, 전공필수 2-3과목, 선택 4과목 등이었다. 따라서 사학과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었던 강좌가 문화사를 비롯하여 한국, 동양 및 서양 상고중세사를 포함하여

모두 4강좌에 불과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교수진의 부족으로 시대사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각 분야의 고대사 및 중세사를 포괄하여 상고중세사라는 매우 포괄적인 과목으로 가르쳐졌던 것이다. 한편 매해 신입생의 선발 및 교수의 충원으로 교과과정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사학과 학생들의 교양 및 전공 선택의 폭도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1956년 사학과의 경우 한국사, 동양사 및 서양사 분야의 개론은 물론 시대사 과목 등을 포함하여 모두 15개의 과목이 개설되기에 이르렀다.

1970년대에 들어 한국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에 발맞추어 고급 인적 자원을 충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실험대학이 도입되었으며, 본교 역시 1973년 이를 채택함으로써 교과과정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실험대학의 골자는 졸업 학점을 줄이고, 부전공제와 복수전공제를 도입하는 한편 신입생의 계열별 모집이었다. 한편 교수진의 보강 및 교과과정의 내실화에 힘입어 1972년에는 전문 연구자 양성을 위한 대학원 석사과정이 설치되었다. 1976년 석사 학위자를 처음 배출한 이래 대학원 사학과는 학문적 역량을 꾸준히 강화함으로써 1980년 대학원 박사과정 설치하게 되었던 것이다.

2. 교수진과 연구성과

재건 당시 사학과 교수진은 우호익과 김양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평양 숭실전문학교 시절 문학과장을 역임하였던 우호익은 재건과 함께 사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래 1983년 명예퇴직 때 까지 한국사 전반에 관한 강의를 담당하였다. 또한 우호익 교수는 명예학장으로서는 학교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신학교에서 수학하였던 매산 김양선 교수는 일찍이 우리나라의 유물 및 고고학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고고학, 미술사 및 한국문화사 등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통해서 사학과의 고고학적 지적 전통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기초를 놓았던 김양선은 『고고학개론』(숭실대학, 1958)을 저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김양선 교수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적해두어야 할 것은 『한국기독교해방십년사』(대한예수교장로회, 1956) 등에서 한국기독교회사 연구에 있어서 백낙준의 '선교사관론'과 쌍벽을 이루는 '수용사관론'의 이론적 초석을 놓았다는 점이다. 그 동안 상대적으

로 간과되었던 기독교회사가로서의 김양선에 관한 연구가, 때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근년에 와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이들 두 교수 외에 1955년 김성식 및 채희순이 전임대우 교수로 부임함으로써 사학과와 학문적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교과과정도 한층 보장되었다. 송실중학을 졸업하고 일본 구주(九州) 대학에서 수학하였던 김성식 교수는 1970년까지 본교에서 서양사를 가르쳤다. 김성식 교수는 한국 서양사학의 토대를 놓은 학자의 하나로서 『대학사』(금룡도서, 1950), 『독일학생운동사』(일신사, 1957) 등의 저술을 통해서 서양사에 대한 지식을 소개하고, 계몽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김성식 교수는 본교 및 고려대에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4·19 혁명, 6·3 운동 등의 중요한 역사적 시기에 학자적 양심을 표명한 행동하는 지성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송실대학에서 수학한 바 있으며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한 채희순 교수는 동양사 관련 과목을 가르쳤다. 해방 후 우리말로 된 동양사 관련 교과서가 건의 전무할 시절 채희순 교수는 『동양문화사』(민중서관, 1948), 『동양사개론』(조양사, 1949) 등을 출간함으로써 이 분야의 일세대 학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였다. 그리고 1957년 조선시대사를 전공한 최영희 교수가 부임하여 1965년까지 한국사를 담당하였다. 그 후 최영희 교수는 국사편찬위원장으로 한국사학계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한편 1960년 미국사를 전공한 홍백룡 교수가 부임하여 서양사를 가르쳤다. 그러나 1975년 미국의 청교도주의 등의 연구를 통해서 미국사 연구를 선도하고 있던 홍백룡 교수의 급시는 사학과 구성원들 모두에게 큰 슬픔이었다. 이 밖에 동양사학계의 거두 민두기 교수는 1966년부터 1969년까지 동양사를 강의하였다.

1960년대 후엽 및 1970년대 초에는 교수진이 크게 보장되었다. 1968년에는 이재룡 교수 및 임병태 교수가 그리고 1970년에는 김문경 교수가 부임하였다. 조선시대 사회경제사를 전공한 이재룡 교수는 한국중세사를 주로 강의하였다. 또한 모교에서 김양선 교수를 사사하였던 임병태 교수는 한국고대사 및 고고학을 가르쳤으며, 매산 김양선의 고고학적 지적 전통을 계승·발전시켰다. 사학과에서 고고학 분야의 많은 인재가 배출된 것은 바로 이들 교수들

의 영향이었던 것이다. 중국고대사 및 고대 한중관계사를 전공한 김문경 교수는 동양사 관련 강의를 담당하였다. 한편 1975년 홍백룡 교수를 뒤이어 최선홍 교수가 부임하여 3년간 서양사를 강의하다가, 타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9년 박은구 교수가 부임하여 서양사 관련 과목들을 가르쳤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60년대 말 이래 유능한 교수들을 총원하여 1970년대 말경 사학과는 고고학 및 한국사, 동양사 그리고 서양사 등을 아울러는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3. 한국기독교박물관의 태동

1967년 7월 21일 김양선 교수가 소장하고 있던 소중한 유물들을 숭실대학에 기증함으로써 한국기독교사 연구의 요람인 한국기독교박물관이 태동하게 되었다. 본교에 개관한 한국기독교박물관의 전신은 1948년 4월 16일 설립된 '한국기독교박물관'이었다. 한국기독교박물관이 설립된 장소는 의미심장하게도 일제 강점기 때 남산에 있었던 '조선신궁(朝鮮神宮)' 터였다. 일제시대 말기 이래 '한국기독교박물관' 설립의 뜻을 확고하게 가지게 된 김양선은 이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였다. 그리고 해방과 더불어 김양선이 단신으로 남하하여 미군정의 허가를 얻어 한국기독교박물관 설립 작업에 착수하자, 한국 기독교계는 교파를 초월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남북한의 분단 고착화 및 남북의 교류의 단절로 박물관 건립 작업은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양선과 그의 가족들은 생사를 걸고 38선을 수차례나 넘나들며 자료들을 반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양선은 부인과 자녀를 잃는 커다란 슬픔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김양선은 가족사의 비극을 극복하고 1947년 마침내 한국기독교박물관을 개관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기독교박물관은 김양선의 헌신 및 그의 가족의 희생의 산물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한국기독교박물관은 굴곡 많은 우리의 현대사처럼, 많은 시련을 겪기도 하였다. 한국전쟁으로 많은 소장품들이 파괴·손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휴전 후에는 박물관 터가 국회의사당 부지로 선정됨에 따라 이주가 불가피하였다. 그리하여 김양선은 귀중한 자료들을 자택에 보관하기로 하였

다. 그러던 중 김양선은 기독교이념에 기초하여 설립된 본교에 기독교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소장한 자료들을 모두 본교에 기증하는 결단을 내렸다. 그리하여 본교의 자랑거리의 하나이자 한국 기독교회사 연구의 요람인 한국기독교박물관이 태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김양선 교수가 기증한 자신의 고고학적 연구성과물, 평생 수집해온 고고미술자료, 실학, 천주교 및 기독교에 관한 사료 그리고 독립운동 관련 자료 등을 포함한 수많은 근·현대사 자료들이 '한국기독교박물관'의 물리적 토대가 되었다. 초기의 대학박물관이 그러하였듯이, 한국기독교박물관 역시 공간 부족과 인력 부족 등으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1976년 학교의 지원, 기독교계의 재정적 후원, 많은 독지가들의 기부 등에 힘입어 독립된 박물관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기독교박물관은 연구 및 교육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4. 학생회 활동

1) 1960·70년대 민주화 운동

불의와 압제에 대한 저항 그리고 시대적 요청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라는 사학과와 전통은 1960년 이후 우리 사회의 격변기에서도 여지없이 표출되었다.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과 오랜 실정으로 인해 이미 민심이 이반된 상태에서 실시된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는 공무원 동원, 경찰의 선거 개입 등의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부정선거로 얼룩졌다. 이 같은 이승만 정권의 부패는 전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였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나서도록 하였던 것이다. 4·19 혁명에서 본교 역시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으며, 특히 사학과는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시위에 참여하였던 김창섭(사학 4)은 총탄을 맞고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며, 지정달(사학 1)은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 이들의 헌신은 바로 숭실 정신의 발현이자,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값진 희생물이었던 것이다.

한편 4·19학생혁명은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에 의해 좌절됨으로써 미완의 혁명으로 남게 되었다. 그 후 쿠데타 세력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한·일 회담은 전국적인 반발을 사게 되었다. 1964년 6·3운동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팽창주의에 대한 민족적 자존운동이자 4·19혁명정신을 유린한 5·16 군사정권에 맞선 민주주의 운동이기도 하였다. 본교의 6·3운동에서 사학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당시 대의원 부의장 및 대의원으로 본교의 시위를 주도하였던 사학과와 유영렬(사학 3, 본교 사학과 교수)과 김보환(사학 4)은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6·3학생운동 이후 박정희 정권의 보다 억압적이고 체계적인 학원 감시 및 탄압으로 학생운동은 약화되기는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7년 6·8 부정선거, 3선 개헌반대 및 교련강화 반대운동, 유신체제 반대 등을 통해서 불의에 항거하는 학생운동은 지속되었으며, 사학과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과 전통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2) 학생자치 활동

학과 창설 이래 사학과와 교육활동은 강의실에서의 전공 학습 못지않게 현장 학습을 중시하였다. 이는 이론적 학습과 현장 실습이 필수불가결한 지식 습득의 과정이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현장학습은 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초기 학회는 답사부, 국사연구부, 동양사연구부, 서양사연구부, 고고학부, 이론사학부, 기독교사부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학회활동 중 가장 중요한 행사는 봄 및 가을 학기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학술답사였다. 정기 학술답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주요한 역사적 현장, 유적지 그리고 산야를 직접 살펴봄으로써 강의실에서 배운 지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인식과 안목을 확대하는 산 교육장이었던 것이다. 또한 정기 답사는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생 상호간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회는 고고학자였던 김양선 교수의 지도아래 토요 정기답사를 실시하였던 바, 이 과정에서 선사시대의 유적지 및 유물을 수집하는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1961년 6월 2주간에 걸쳐 진행된 답사에서는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신석기시대의 토기 파편, 마제석부 및 백제시대의 패총 유적지를 발견하는 커다란 결실을 거두었다. 또한 1966년 5월에는 역삼동에서 선사시대 대규모 집터 발굴을 통해서 돌도끼, 반월형석도, 석촉 등의 귀중한 유

물을 채집함으로써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기도 하였다. 이 밖에 수차례에 걸친 발굴 성과물 및 유물들은 고고학의 발전 및 한국고대사 해명에도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다.

5. 졸업생

초창기로부터 70년대 말엽까지 사학과의 입학정원이 약 20~25명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배출된 졸업생의 숫자는 총 290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졸업생은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중 다수의 동문들이 교사, 목사 등으로 교직 및 종교계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일부 졸업생들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문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교계에서는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한 최훈(동도교회 원로목사), 김사풍(전 기독교방송 이사 및 성공회신부) 등을 배출하였다. 교육계에서는 오영환(전 중경고 교장), 유지만(송덕여중 교장) 등을 포함한 다수의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언론계의 김호영(전 매일경제 부장) 그리고 연구기관의 정계옥(문화재청 학예연구관) 등을 배출하였다. 또한 사학과의 역량은 졸업생들의 학계 진출에서도 현저하게 드러났다. 이 시기의 졸업생들 중 적지 않은 동문이 대학의 교수로서 활약하였거나 활약하고 있다. 즉 방선주(전 한림대 객원교수), 박환규(한국체육대학), 유영렬(본교 사학과 및 대학원장), 김정락(대구보건전문대학), 최병현(본교 사학과), 하정식(본교 사학과), 박정신(본교 기독교학과), 안춘배(신라대), 이상선(성신여대), 이희제(숙명여대), 이형의(서울장신대) 등이다. 본학과 출신 최초의 외국박사학위 취득자인 방선주 동문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西周的 연대기에 관한 연구〉(Univ. of Toronto, 1977)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학문적 관심을 한국사으로 까지 확대하여 『재미한인의 독립운동』(한림대 출판부, 1989), 『한국현대사와 미군정』(한림대 출판부, 1991) 등을 저술하였다.

III. 성장기 - 1980년대로부터 현재까지

1980년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숭실대학교 사학과는 학문적 성과 및 학과의 위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많은 발전을 하였다. 우선 재학생의 급격한 증가에 적극 대응한 교수진의 보강을 통해서 학문적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교수진의 연구에 있어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사학과는 대학원의 석·박사과정에서 우수한 연구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하였다. 더욱이 사학과에서는 학과의 교수진과 동문이 주축이 되어 '숭실사학회'를 조직하고 전문학술지인 『숭실사학』을 발간하여 사학과의 학문적 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식 건물로 완공된 '한국기독교박물관'의 재개관, 강연회의 개최 및 기념논총의 발간 등은 사학과의 학문적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 교과과정 및 대학원의 성장

1980년 이후 사학과 학사운영의 변화를 검토하고 석·박사학위 취득자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 보는 것은 사학과의 학문적 경향이나 성과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 순서일 것으로 생각된다.

1980년대 이후 사학과 교과과정표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교양과목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경향은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그런데 1995년에 이르면 국제화 및 정보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교과과정을 편성하는 동시에 필수과목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요구와 본교의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교양교육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한편 사학과 전공과목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최근세사의 명칭이 모두 '현대사'로 그리고 '근세사' 과목의 명칭도 모두 '중세사'로 변경되었다. 또한 1995년의 교과과정표에는 한국사연습, 동양사연습, 서양사연습 등의 과목이 추가되었는데, 이들 과목은 해당과목의 중요한 토픽에 대해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중요한 쟁점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능력의 배가를 목표로 하였다. 이밖에도 전공 선택으로 '일본사'가 추가됨으로써 학생들의 강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다.

한편 <표 1>의 2004년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교양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전공과목의 경우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동양사 개설과 서양사개설 대신 중국사입문과 서양사입문이 개설되었고 한국사연습, 동양사연습, 서양사연습은 한국사세미나, 동양사세미나, 서양사세미나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서구 근대 사회의 토대가 형성된 '18세기 유럽사'가 전공 선택 과목으로 개설된 것은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1980년 이후 사학과는 국책과목의 폐지와 교양 영역의 확대 및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면서 사학과와 전공 영역에서 재학생들의 학문적 역량을 효과적으로 집중화하기 위한 과목의 개설과 교육과정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표 1〉 2003-2004년 송실대학교 요람에 나타난 사학과 교과과정

학년	1 학기					2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명(영역)	시간	학점	비고	이수 구분	교과명(영역)	시간	학점	비고
1	교필	채플				교필	채플			
		국어	2	2	기독교의 이해					
		영어회화 1	3	1	영어회화 2					
		컴퓨터활용 1	3	1	컴퓨터 활용 2					
	교선	(교양영역별선택)		4-6	교선	(교양영역별선택)				
	기초	영어	3	3	기초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한문) 택1				
		언어와 문학	3	3		인간과 역사				
삶과 철학		3	3							
2	교필	채플			교필	채플				
		성서의 이해	2			(교양영역별선택)		2-4		
	교선	(교양영역별선택)		2-4	교선	동서문화교섭사	3	3	부전공	
	전선	중국사입문	3	3	전선	일본사	3	3		
		동양고대사	3	3		서양고대사	3	3		
		서양사입문	3	3		한국중세사	3	3		
		한국고대사	3	3		고고학개론	3	3		
한국사강독		3	3	역사학입문		2	2	부전공		
3	교필	채플			교필	채플				
		동양사 강독	3	3		한국근대사	3	3		
	전선	동양중세사	3	3	전선	한국사 제문제	3	3		
		서양중세사	3	3		동양근대사	3	3		
		한국근세사	3	3		서양근대사	3	3		
		한국역사관의 이해	3	3						
4	전선	한국미술사	3	3	전선	동양현대사	3	3		
		한국현대사	3	3		서양현대사	3	3		
		서양사강독	3	3		한국사세미나	3	3		
		18세기 유럽사	3	3		서양사세미나	3	3		

이 시기 대학원은 교과과정 및 전문인력 배출에 있어서 현저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사학과의 석사과정은 1972년 1월에 그리고 박사과정은 1980년 11월에 설치되었으며, 2004년 현재 한국사, 고고미술사, 동양사, 서양사 분야에서 학위자를 배출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원의 경우도 교과목운영에 있어서 약

간의 변화가 있었던바, 이는 1990년대에 들어 본격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97년 새롭게 설치된 고고미술사전공은 대학원 지원자들 중 크게 증가한 고고학전공자의 지적 욕구에 부응한 것이었다. 또한 사학과에서 개설 가능한 교과과목의 수도 1990년대에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1980-2004년까지 사학과 대학원에서는 총 17명의 박사학위자와 65명의 석사학위자를 배출하였다.

〈표 2〉 사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일람표(1980~2004년)

번호	년도	성명	논문제목	비고
1	1990.2	정길자	新羅時代 火葬 骨葬用 土器研究	
2	1990.8	최병현	新羅 古墳 研究	
3	1994.8	김동인	朝鮮 前期 良人層 分化研究	
4		박경룡	開化期 漢城府 研究	
5	1997.8	황민호	1920년대 在滿 韓人社會의 民族運動 研究	
6	1998.2	최완규	錦江流域 百濟 古墳의 研究	
7		하문식	東北亞細亞 고인돌文化 研究	
8	1998.2	이덕일	東北抗日聯軍 研究	
9	1999.8	이희만	군주와 궁정인 : John of Salisbury의 정치사상 연구	
10	2000.2	홍경만	韓國 改新敎 受容과 그 性格에 관한 研究	
11		윤정란	日帝時代 韓國基督教 女性運動 研究	
12		김정렬	四周 支配體制에 관한 研究	
13	2001.2	한명근	日帝의 韓國侵略論과 韓國政治勢力의 對應	
14		김권정	1920.30년대 韓國基督教人의 民族運動研究	
15	2002.2	김소은	16세기 兩班士族의 生活相 研究	
16	2003.8	박철하	1920년대 社會主義 思想團體 研究	
17	2004.2	이영재	Gregory 7세의 교황주권론 연구	

〈표 2〉를 통해서 볼 때 박사학위 취득자는 전공별로 고고미술사 4명, 한국중세사 3명, 한국근대사 7명, 동양사 1명, 서양사 2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석사학위자의 경우는 고고미술사 22명, 한국중세사 11명, 한국근대사 15명, 동양사 10, 서양사 11명으로 고고미술사와 한국사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석·박사학위 논문의 대부분은 관련 전문학회에서의 발

표를 통해 간행되었으며,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학위논문을 심화·확대하여 저서를 발간하거나 학문의 영역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와 석·박사과정 모두 1980년대 이후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왔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학문적 성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교수진과 연구업적

1980년대 이후 사학과 교수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70년대 이래 사학과에 재직 중이던 이재룡·임병태·김문경·박은구 교수 이외에 1982년 3월 유영렬 교수가 그리고 1983년 3월에는 김인중 교수가 부임하였다. 하지만 1995년 12월 임병태 교수의 갑작스러운 타계는 사학과 구성원들 및 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슬픔을 안겨주었다. 한편 1996년 2월 이재룡 교수 및 김문경 교수가 동시에 정년을 맞이하였다. 그 후 사학과에는 1996년 3월과 9월 각각 권영국 교수와 최병현·하정식 교수가 부임한 이래 현재 6명의 교수가 재직하고 있다.

사학과 교수들은 연구라는 학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대외적으로는 전공분야의 역사학계의 발전에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여기서는 1980년 이후 현재까지의 사학과 교수들의 연구업적과 대외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봄으로써 사학과와 학문적 성과 및 대외적 위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수들의 연구업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재룡 교수는 1968년 3월 본교에 부임하여 한국사강독, 한국중세사, 한국근세사 등을 담당하였다. 이후 본교 교무처장, 인문대학장, 기획실장, 대학원장을 역임하였으며, 1980년 1월에는 한국사연구회 회장에 피선되었고 1985년 1월에는 역사학회 회장에 선출되어 한국사학회 학술단체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재룡 교수는 『조선초기사회구조연구』(일조각, 1984)로 1985년 제1회 월봉저작상을 수상하였다. 퇴임 이후의 연구의 산물인 『조선전기경제구조연구』,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9)는 『조선초기사회구조연구』와 더불어 조선 전기 사회경제사 분야의 대표적 저서로 평가받고 있다. 임병태 교수는 1968년 3월 본교 사학과에

부임하여 한국고대사와 고고학분야의 강의를 담당하였다. 본교의 박물관장, 총무처장, 인문대학장을 역임하였고 1990년 1월 한국고고학회 회장에 선출되어 한국고고학계를 이끌었다. 1996년 출간된 임병태 교수의 유저 『한국청동기문화 연구』는 1997년 동헌학술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1970년 3월 본교에 부임한 김문경 교수는 동양고대사와 한적강독, 동서문화교섭사 등의 강의를 담당하였다. 김문경 교수는 『당 고구려유민과 신라교민』, (일신사, 1986), 『唐代的 社會와 宗教』, (송전대학교 출판부, 1984) 등을 저술하였다. 또한 교무처장, 인문대학장, 대학원장을 역임하였으며, 1987년 5월 동양사학회 회장에 그리고 1991년에는 한국동향학회 회장에 선출되었다. 퇴임이후에도 김문경 명예교수는 『7-10세기 한·중·일 교역관계 역주』(한국편·중국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3), 『7-10세기 한·중·일 교역관계 역주』(일본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3) 등을 출간하였으며, 현재 해상왕장보고연구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근현대사가 전공인 유영렬 교수는 1982년 3월에 본교에 부임하여 한국근대사·한국현대사 이해 등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박물관장, 인문대학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학원장으로 봉직하고 있다. 1990년 3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고등학교 국사연구개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유영렬 교수는 2003년 1월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회장에 피선되었으며, 그 해 10월 이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영렬 교수는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인식』, (국학자료원, 2000), 『대한제국기 민족운동』, (일조각, 1997) 등의 주요 저서를 비롯하여 한말 애국계몽운동 및 근대 민족운동에 관한 다수의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한국중세사를 전공한 권영국 교수는 1996년 3월 부임하였으며, 한국중세사, 한국사강독 등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사학회의 연구이사를 역임하였다. 권영국 교수는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국역사연구회, 1997), 『고려사식화지역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등을 저술하였다.

김양선 교수로부터 시작되어 임병태 교수에게 계승된 송실의 고고학적 지적 전통을 발전시키고 있는 최병현 교수는 1996년 9월에 부임하여 고고학, 한국고대사 등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한국기독교박물관 관장을 역임하

고 있으며, 한국고고학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병현 교수는 『금장산대지고분군』(충남대 박물관, 1992), 『신라고분연구』(일지사, 1990) 등을 저술하였다. 또한 최병현 교수는 삼국시대의 고분 및 토기에 관한 중요한 논문들을 다수 발표하였다.

동양근대사가 전공인 하정식 교수는 본교에 부임하여 동양사강독, 동양근대사 등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동양사학회 평의원과 역사학회의 평의원을 역임하였으며, 1998년 4월 중국근대사학회의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하정식 교수는 『근대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모』(혜안, 2002)를 저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미열강의 중국침략과 조선의 반응』, 『19세기중엽 중국의 병란정보와 조선왕조』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서양중세사가 전공인 박은구 교수는 1979년 본교에 부임한 이후 서양중세사, 서양사연습 등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협력부장과 인문대학장을 역임하였으며, 1994년 5월 한국서양사학회 감사에 선임되었고, 2004년 2월 한국서양중세사학회 회장에 선출되었다. 박은구 교수는 『서양중세사 강의』(느티나무, 2003) 및 『서양중세 정치사상연구』(혜안, 2001) 등을 출간하였다. 특히 『서양중세 정치사상연구』는 서양중세 정치의식의 다의성과 역동성을 실체적으로 규명한 역작으로, 2002년 학술원 우수 학술저작에 선정되었다. 또한 박은구 교수는 서양 중세의 문화와 사회 그리고 역사이론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S. 오즈맹, 『프로테스탄티즘: 혁명의 태동』(혜안, 2004), G. 이거스, 『현대 사회사학의 흐름』(전예원, 1982) 등을 포함한 서구학계의 고전적인 여러 저서들을 번역·출간하였다.

서양현대사를 전공한 김인중 교수는 1983년 3월 본교에 부임하여 서양사개설, 서양현대사 등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서양사학회 총무와 역사학회의 이사를 거쳐 2004년 2월 한국프랑스학회 회장에 피선되었다. 김인중 교수는 『세계체제론의 역사적 이해』(까치글방, 1998), 『프랑스 노동운동과 사회주의』(느티나무, 1989) 등을 저술하였다. 또한 김인중 교수는 근대 노동자계급의 형성으로부터 19세기 부르주아지 및 공화주의에로까지 지적 인식의 지평을 확대·심화시키고 있는 바, E. P. 톰슨의 『영국노동계급의 형성』(창작과 비평사, 2002)의 번역·출간하였으며, 『19세기 프랑스의 공화국과 정치적 자

유주의』 등의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사학과와 발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전문학술지인 『송실사학』의 간행이었다. 1981년 이후 계속 검토되어 오던 학회지 발간은 1983년 2월 8일 사학과 교수회의에서 학회지 간행에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학회지 『송실사학』은 역사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된 “송실사학회”를 주축으로 하여, 편집위원회, 동문 및 교수들의 재정적 후원에 힘입어 간행되고 있다. 1983년 3월 창간호가 발행된 이래 『송실사학』은 2004년 2월까지 17집이 발간되었으며, 총 93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중 고고학·한국고대사 13편, 한국중세사 9편, 한국근대사 30편, 서양사 24편, 동양사 15편, 역사이론 2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송실사학』의 논문 게재자의 다수가 본과 교수 및 동문 출신이라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며, 게재자의 다변화와 논문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학과에서는 그 분야의 탁월한 학자들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990년 3월 6일 사학과 주최로 대만 輔仁大學 大學院 史學科의 戚世皓 박사를 초빙하여 “1911년 혁명과 중국의 정치·문화”라는 제목의 학술강연회를 그리고 2004년 5월 20일에는 한국프랑스학회(회장 김인중) 주최로 프랑스의 세계적인 석학 마르크 페로 교수의 “식민지화와 탈식민지화”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었다. 이 밖에 사학과에서는 1990년 12월 『이재룡박사환력기념 학국사학논총』 및 1996년 6월 『김문경교수 정년퇴임기념 동아아시아사연구논총』을 간행하였다.

3. 한국기독교박물관의 성장

매산 김양선의 한국기독교박물관이 모태가 된 본교의 한국기독교박물관은 1967년 7월 21일 개관한 이래 박물관으로서의 교육적 기능과 한국기독교사 연구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리하여 증가하는 소장품의 보관 및 전시, 기독교계 및 일반인의 관련 자료 관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76년에는 독립적인 박물관 건물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1980년대 중엽 이래 기독교박물관은 새로운 발굴과 소장품의 증가, 자료 기증 등으로 수장 공간의 협소 및 시설 전반의 현대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하

지만 2003년 7월 21일 현대적 전시시설을 갖추고 과학적인 수장 공간을 구비한 새로운 박물관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된 신축 박물관은 한국기독교역사실, 송실역사실, 민족운동사실, 고고미술사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독교박물관은 2종의 국보(국보 제 141호 다뉴세문경, 국보 제 231호 청동기용범)와 2종의 보물(보물 883호 지구의, 보물 569호 안중근 의사 유묵) 외에도 '양의현람도', '3·1 독립선언서', '대동여지도 판목' 등을 포함하여 약 7,000여점의 소중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근년에 개최된 전시회 및 주관한 유적 조사 등의 활동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듯이, 기독교박물관은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전시회

- 1985년 10월 : 수원 서둔동유적 출토유물 전시회
- 1986년 5월 : 한국대학 박물관 전시회
- 1989년 10월 : 독립운동사자료 특별전
- 1990년 10월 : 근세신문·잡지전
- 1991년 : 지리·천문 특별자료전
- 2004년 4월 : 한국기독교박물관 신축이전 개관전
- 2004년 5월 : 사진으로 본 서울 송실 50년

■ 주요 유적조사

- 1977년~1984년 : 수원 서둔동 유전발굴조사
- 1986년 : 중부고속도로 구간 유적발굴조사(청원 여천리 고분군)
- 1986~1987년 : 주암댐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 1987년 : 서울 석촌동 백제고분 발굴조사
- 1987년~1992년 : 하남 미사리유적 발굴조사
- 1990년 : 성남 분당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 1999년 : 경부고속철도 상리구간 문화유적 발굴조사

또한 박물관에서는 1990년 8월 10일 梅山先生20週忌紀念講演會, 2004년 4월 8일 제1회 매산 기념강좌 등 김양선 교수와 관련된 기념강연을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매산 기념강좌는 앞으로도 고고학자 겸 교회사가였던 김양선 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이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기독교박물관은 개관 이래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박물관으로서 한국기독교의 역사 및 문화 연구의 요람으로 그리고 한국의 고대사 및 고고학 연구에 중요한 역할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기독교박물관은 앞으로도 각종 학술활동, 효과적인 기획전시 및 꾸준한 학술 연구를 통해서 학계는 물론 기독교계로부터 신뢰받는 박물관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4. 학생회 활동

1) 198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과 사학과

1980년대에 들어 한국사회의 학생운동은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정권이 와해되고 서울의 봄을 거쳐 전두환·노태우로 대표된 군부독재의 연장이 가속화되자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민주화가 80년대 우리 사회의 최대의 화두였던 상황에서 본교에서는 학원민주화의 일환으로 1979년 12월 이래 학생회 부활운동이 일어났으며, 사학과 학생들 또한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주도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던 본교의 학생운동은 1983년에 들어 본격적으로 체계화·조직화되기 시작하였다. 1984년 11월 총학생장에 당선된 사학과의 강길호(3학년)는 1985년 9월 2일, 신민당 종로지구당사 점거농성을 주도하다 구속될 때까지 교·내외에서 적극적인 민주화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해 9월 12일 소집된 '비상총학생회'에서 박성호(사학과 4)가 총학생장에 선출됨으로써 민주화투쟁에 박차를 가하였다. 당시 그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학교당국과 마찰을 빚게 되었던 총학생회는 학내문제를 학원민주화의 연장선상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중지와 광주항쟁을 계승하는 각종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1985년 학원사태와 관련하여 구속된 본교 학생은 9명이었는데 그중 사학과 학생은 5명이었

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1986년 구속된 13명의 학생 중 사학과 학생은 2명이었다.

1987년에 들어서 학생운동은 6·10항쟁으로 이어지면서 그 절정에 달하였다. 본교의 6월 항쟁은 6월 9일 본격화되었으며, 6월 10일 사학과 및 철학과 등이 중심이 되어 교내 시위를 주도하면서 교내외로 확산되었다. 1987년 6.10항쟁 이후 학생운동은 1987년 ‘대통령선거투쟁’과 ‘5공비리 청산’, ‘노태우정권 퇴진 투쟁’ 등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1980년 이후 사학과 학생들은 교내 민주화 및 사회 민주화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2) 학생회의 자치활동

1980년대 이후 사학과와 학생자치활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분화·다양화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1996년 학생회 조직은 운영위원회, 집행부, 학회연합회,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 그것이다.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의 핵심 의사결정기구로 학생회 정·부회장, 각 학년 정·부대표, 학회연합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집행부는 선전기획부, 문화부, 사회부 여학생부로 구성되어 학회의 행사와 활동을 관장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조직은 집행부, 학술부, 답사부, 탁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던 1980년대 초반의 학생회 조직에 비하면 상당히 체계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사학과 학생들은 1980년대 후반 학술부 주최의 학술발표회를 통해 ‘한국근대사학회와 민족적 과제’, ‘민족해방운동사에 있어서의 3·1운동 -청년·학생을 중심으로-’ 등의 한국근현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주제들에 관한 학술 활동을 전개해왔다.

1993년 구성된 학회연합은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탁본학회, 옛터지기, 분단사연구회, 탁본학회가 있었으며, 소모임으로는 과 소식지를 만드는 씨울, 풍물패인 트물,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소리여울이 있었다. 한편 학회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사학과 학생들의 학술활동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본격화 되었다. 한국근현대사연구회는 개항 이후 현대에 이르는 시기까지를 망라하여 학생들의 관심주제를 매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학술제를 통해서 발표되고 있다. 또한 분단사연구회는 광복 이후 한국전쟁기에 이르는

시기를 중점적으로 학습함으로써 분단의 실상 및 한국현대사의 구조적 이해에 주력하고 있다. 탁본학회 역시 유적을 탁본한 후 이와 관련된 금석문이나 한문강독을 아울러 실시하고 있다. 매년 개교기념일에는 탁본 전시회를 개최하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 옛터지기는 고고미술사학회로서 주로 고대미술사를 연구하는 학회이며, 고건축, 불상, 석조물 등으로 나누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사학과 학생들의 행사 가운데 가장 비중 있는 행사로는 정기학술답사를 들 수 있다. 매학기 마다 실시되는 정기학술답사는 전북·충남지역, 경남지역, 중부지역, 전남지역, 경북지역, 강원지역 등을 순차적으로 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 의해 발간되는 '학술답사자료집'은 답사지역의 유물이나 유적에 대한 설명은 물론, 상세한 지역개관 및 각 학회가 학기별로 준비한 세미나 발표문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충실한 자료집으로 평가 받고 있다.

5. 졸업생들

1980년 이후 2004년 2월까지 사학과 졸업생은 817명에 이른다. 이 시기 졸업생들은 사회의 각 분야에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교육계 및 기독교계의 목회자로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도 적지 않다. 본교 사학과 출신으로 1980년 이후에 타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동문은 다음과 같다. 유영렬, 『개화기 윤치호 연구』(1985.2 고려대), 이상선, 『고려시대의 사원경제의 위상』(1992.8 고려대), 안춘배, 『가야토기와 그 영역의 연구』(1994. 2. 동아대), 박양식, 『종교개혁 시대의 천년왕국운동』(1997. 2. 서강대) 등이 있다. 또한 본교 출신으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동문은 하정식, 박정신, 이옥순, 정철웅, 강인구, 이찬원 동문이 있다. 하정식 동문은 일본 京都大學에서 『太平天國と朝鮮王國』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미국 워싱턴 대학(Univ. of Washington)에서 『개신교도들과 한국정치(1880-1980)』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정신 동문은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학 사학과 교수로 있다가, 귀국하여 현재 본교 기독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기독교사 인식』(혜안, 2004), 『한국기독교 읽기』(다락방, 2004) 등을

저술한 박정신은 매산 김양선의 한국교회사 학풍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1990년 10월 프랑스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에서 「清代 揚子江 中流地域의 農業發達과 商業活動」이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정철웅 동문(명지대 교수)은 『역사와 환경: 명청의 경우』(책세상, 2002)를 출간하였다. 이옥순 동문(연세대 연구교수)은 1991년 3월 인도 델리대학 대학원 역사학과에서 「식민주의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인도에는 카레가 없다』(책세상, 1997), 『우리안의 오리엔탈리즘』(푸른역사, 2002) 등의 일련의 저서를 통해 인도 문화 및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강인구 동문(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은 1995년 9월 성-베제르부르그 국립대학 역사학부 대학원 러시아 현대사학과에서 「1940년대 후반기 소련과 북한간의 문화교류」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오두영 동문(장남대 연구교수, 대학원)은 1998년 7월 러시아 국립과학원 산하 러시아 역사연구원에서 「스페란스키의 개혁: 이상과 실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2년 2월 중국북경 인민대학교 중국공산당 사학과에서 「中國近代 華北地域 農民의 民俗信仰」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찬원 동문은 본교 사학과에 출강하고 있다. 또한 최길도 동문은 2003년 5월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학(Univ. of Wisconsin, Madison)에서 「자바 직립인의 섭생과 도구 이용법」이라는 제목으로 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편 이덕일 동문은 『당쟁으로 보는 조선 역사』(석필, 1997),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I, II (김영사, 2004) 등의 다수의 저서들에서 학문적 깊이는 물론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글쓰기를 통해 우리 역사의 대중화 작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밖에 1980년대 이후의 졸업생 들 가운데 장영숙(서해대학), 허문식(세종대, 대학원), 최완규(원광대, 대학원) 등이 대학교수로 활동 중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숭실대학교 사학과와 지난 반세기간의 학문적 성과 및 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학과는 창설 이래 1970년대 까지 평양 숭실의 역사학적 전통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수진의 보강, 교과과정의 정비, 한국교회사 연구의 요람인 한국기독교박물관의 설립, 대학원의 신설 등의 의미 있는 초석들을 놓았다. 그리하여 이를 토대로 1980년대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에는 교수진의 보강과 양질의 연구업적, 『숭실사학』의 간행, 대학원의 전문 연구자들의 배출, 기독교박물관의 활발한 연구와 교육활동 및 새로운 신축 건물로의 이전 등 다양한 부문에서 많은 성장을 하였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학과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학과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더욱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역량을 집결시켜야 할 것이다. 우선, 교수들은 연구에 매진하여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학문적으로 크게 기여해야 할 것임은 이를 나위 없다. 또한 박사학위 취득자 및 대학원생들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가 내지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학부생들 역시 내실 있는 '교양인'이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숭실사학』의 학문적 위상 제고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리하여 『숭실사학』이 대내외적으로도 인정받는 학술지로 거듭나기 위한 면밀한 준비와 부단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한국기독교박물관의 연구 역량 강화 및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모색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통일 이후 평양의 숭실 재건 및 사학과 창설을 위한 청사진 제시 또한 결코 미래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이 밖에 동문회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사학과 발전기금의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재원 확보는 사학과와 학문적 역량 강화 및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반세기 동안 사학과는 꾸준한 성장을 통해 구성원들 모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던 동시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 주고 있는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 역시 사학과 구성원들 모두의 몫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승실대학교 100년사』, 승실대학교 출판부, 1997.
『승실대학 신문』
『승실대학교 요람』
『승실사학』, 1집~17집
유영렬 엮음, 『한국기독교사학자 김양선』, 승실대 출판부, 2001.

【Abstract】

The 50th Anniversary of History Department: Its Academic Achievements

Lee, Hee-Man & Hwang, Min-Ho

The department of history had 50th anniversary this year. It was founded in 1954. In fact, a historical tradition at Soongsil University went back to Soongsil in Pyungyang, where Korean history, Asian history and Western history were taught. Given this fact, it was not surprising that history department was established with the reopening of Soongsil College in Seoul in 1954.

The fifty years of history department might be generally divided into two periods. First period from 1954 through 1970' s laid important foundations such as the recruitment of faculty, the extension of curricula,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Christian Museum, which was a cradle of Christian studies in Korea, and the foundation of graduate school. Second period from 1980' s till present saw development in many respects including academic achievement of the faculty and growth of the graduate school and the Korea Christian Museum, and publication of Soongsil Sahak(historical review).

Since its establishment history department has produced alumni over 1,100. Many of them are also active in the various fields as professor, researcher, pastor, teacher, and so on. All members are proud of its history. However, the department confronts some problems. In other words, the faculty must do their best to contribute to intellectual development, the graduate students to become good researcher, and the

undergraduate students to become cultured person. Thus, it is our task to respond to these challenges positively.

Key Words : faculty, Korea Christian Museum, graduate school, Soongsil Sahak, alumni